

“더위야 물럿거라”

사회공헌 활동 후끈

YNCC, 동여수노인복지관 효도급식 삼계보양식 제공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노인복지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어르신들께 삼계 보양식을 효도급식하며 복달임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 행사는 아외에 희망밥차 현장에서 삼계탕을 조리, 어르신들께 제공함으로써 원도심 재가어르신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동여수노인복지관(관장 정금칠)은 19일 여수시 종화동 해양

공원에서 YNCC(공동대표 최금암·이규정) 임직원을 비롯해 3팀 드림봉사단(단장 황체동)원 3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찌는 듯한 폭염속에서 희망밥차 이용 어르신 30여분께 삼계 보양식을 제공하는 복달임 효도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삼계 복달임 행사에는 지난 1일자 과장 승진자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 했으며 3팀 드림봉사단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어수=송기홍 기자

정기적으로 희망밥차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의 자발적 봉사단이다.

3팀 드림봉사단은 이날 YNCC 회사 차원의 후원과는 별도로 봉사단원들이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아 회사외의 폐청원드로 복지관 경로식당 지원을 비롯해 재가 어르신들께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 시작지대 혜소를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 희망밥차 현장에서는 본격 배식에 앞서 시니어 공연단의 신명나는 난타공연이 펼쳐져 시니어 더위를 날렸다.

YNCC 3팀 드림봉사단은 오는 10월초 중추절에도 원도심 재가 어르신들을 위한 풍성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동여수노인복지관은 지난 11일, 13일 초복을 전후해 여수시 회정면 월호도·복지관·경로식당·그리고 희망밥차 등지에서

모두 1천여 미리의 삼계·오리

보양식을 조리해 지역 어르신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효도급식했다.

어수=송기홍 기자

곡성군 옥과 은빛사랑봉사단, 찾아가는 재능기부 문화공연



옥과 은빛사랑봉사단(단장 황복화, 강사 한순임)은 지난 14일 농촌 재능기부 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 어르신보다 10살은 더 드셨어도 건강하고 힘 넘치게 그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회원들과 맞춰 넘실 넘

‘찾아가는 재능기부 문화공연’을 겸연 흥선보금자리 입원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가졌다.

은빛사랑봉사단의 최고령자가 89세(정암임)로 흥선보금자리 입원 어르신보다 10살은 더 드셨어도 건강하고 힘 넘치게 그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회원들과 맞춰 넘실 넘

‘찾아가는 재능기부 문화공연’을 겸연 흥선보금자리 입원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가졌다.

온빛사랑봉사단의 최고령자가 89세(정암임)로 흥선보금자리 입

원 어르신보다 10살은 더 드셨어도 건강하고 힘 넘치게 그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회원들과 맞춰 넘실 넘

‘찾아가는 재능기부 문화공연’을 겸연 흥선보금자리 입원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가졌다.

온빛사랑봉사단의 최고령자가 89세(정암임)로 흥선보금자리 입

원 어르신보다 10살은 더 드셨어도 건강하고 힘 넘치게 그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회원들과 맞춰 넘실 넘

‘찾아가는 재능기부 문화공연’을 겸연 흥선보금자리 입원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가졌다.

온빛사랑봉사단의 최고령자가 89세(정암임)로 흥선보금자리 입

원 어르신보다 10살은 더 드셨어도 건강하고 힘 넘치게 그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회원들과 맞춰 넘실 넘

‘찾아가는 재능기부 문화공연’을 겸연 흥선보금자리 입원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가졌다.

온빛사랑봉사단의 최고령자가 89세(정암임)로 흥선보금자리 입

원 어르신보다 10살은 더 드셨어도 건강하고 힘 넘치게 그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회원들과 맞춰 넘실 넘

‘찾아가는 재능기부 문화공연’을 겸연 흥선보금자리 입원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가졌다.

온빛사랑봉사단의 최고령자가 89세(정암임)로 흥선보금자리 입

원 어르신보다 10살은 더 드셨어도 건강하고 힘 넘치게 그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회원들과 맞춰 넘실 넘

‘찾아가는 재능기부 문화공연’을 겸연 흥선보금자리 입원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가졌다.

온빛사랑봉사단의 최고령자가 89세(정암임)로 흥선보금자리 입

원 어르신보다 10살은 더 드셨어도 건강하고 힘 넘치게 그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회원들과 맞춰 넘실 넘

‘찾아가는 재능기부 문화공연’을 겸연 흥선보금자리 입원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가졌다.

온빛사랑봉사단의 최고령자가 89세(정암임)로 흥선보금자리 입

원 어르신보다 10살은 더 드셨어도 건강하고 힘 넘치게 그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회원들과 맞춰 넘실 넘

‘찾아가는 재능기부 문화공연’을 겸연 흥선보금자리 입원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가졌다.

온빛사랑봉사단의 최고령자가 89세(정암임)로 흥선보금자리 입

원 어르신보다 10살은 더 드셨어도 건강하고 힘 넘치게 그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회원들과 맞춰 넘실 넘

‘찾아가는 재능기부 문화공연’을 겸연 흥선보금자리 입원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가졌다.

온빛사랑봉사단의 최고령자가 89세(정암임)로 흥선보금자리 입

원 어르신보다 10살은 더 드셨어도 건강하고 힘 넘치게 그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회원들과 맞춰 넘실 넘

‘찾아가는 재능기부 문화공연’을 겸연 흥선보금자리 입원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가졌다.

온빛사랑봉사단의 최고령자가 89세(정암임)로 흥선보금자리 입

원 어르신보다 10살은 더 드셨어도 건강하고 힘 넘치게 그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회원들과 맞춰 넘실 넘

‘찾아가는 재능기부 문화공연’을 겸연 흥선보금자리 입원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가졌다.

온빛사랑봉사단의 최고령자가 89세(정암임)로 흥선보금자리 입

원 어르신보다 10살은 더 드셨어도 건강하고 힘 넘치게 그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회원들과 맞춰 넘실 넘

‘찾아가는 재능기부 문화공연’을 겸연 흥선보금자리 입원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가졌다.

온빛사랑봉사단의 최고령자가 89세(정암임)로 흥선보금자리 입

원 어르신보다 10살은 더 드셨어도 건강하고 힘 넘치게 그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회원들과 맞춰 넘실 넘

‘찾아가는 재능기부 문화공연’을 겸연 흥선보금자리 입원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가졌다.

온빛사랑봉사단의 최고령자가 89세(정암임)로 흥선보금자리 입

원 어르신보다 10살은 더 드셨어도 건강하고 힘 넘치게 그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회원들과 맞춰 넘실 넘

‘찾아가는 재능기부 문화공연’을 겸연 흥선보금자리 입원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가졌다.

온빛사랑봉사단의 최고령자가 89세(정암임)로 흥선보금자리 입

원 어르신보다 10살은 더 드셨어도 건강하고 힘 넘치게 그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회원들과 맞춰 넘실 넘

‘찾아가는 재능기부 문화공연’을 겸연 흥선보금자리 입원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가졌다.

온빛사랑봉사단의 최고령자가 89세(정암임)로 흥선보금자리 입

원 어르신보다 10살은 더 드셨어도 건강하고 힘 넘치게 그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회원들과 맞춰 넘실 넘

‘찾아가는 재능기부 문화공연’을 겸연 흥선보금자리 입원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가졌다.

온빛사랑봉사단의 최고령자가 89세(정암임)로 흥선보금자리 입

원 어르신보다 10살은 더 드셨어도 건강하고 힘 넘치게 그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회원들과 맞춰 넘실 넘

‘찾아가는 재능기부 문화공연’을 겸연 흥선보금자리 입원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가졌다.

온빛사랑봉사단의 최고령자가 89세(정암임)로 흥선보금자리 입

원 어르신보다 10살은 더 드셨어도 건강하고 힘 넘치게 그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회원들과 맞춰 넘실 넘

‘찾아가는 재능기부 문화공연’을 겸연 흥선보금자리 입원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가졌다.

온빛사랑봉사단의 최고령자가 89세(정암임)로 흥선보금자리 입

원 어르신보다 10살은 더 드셨어도 건강하고 힘 넘치게 그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회원들과 맞춰 넘실 넘

‘찾아가는 재능기부 문화공연’을 겸연 흥선보금자리 입원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가졌다.

온빛사랑봉사단의 최고령자가 89세(정암임)로 흥선보금자리 입

원 어르신보다 10살은 더 드셨어도 건강하고 힘 넘치게 그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회원들과 맞춰 넘실 넘

‘찾아가는 재능기부 문화공연’을 겸연 흥선보금자리 입원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가졌다.

온빛사랑봉사단의 최고령자가 89세(정암임)로 흥선보금자리 입

원 어르신보다 10살은 더 드셨어도 건강하고 힘 넘치게 그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회원들과 맞춰 넘실 넘

‘찾아가는 재능기부 문화공연’을 겸연 흥선보금자리 입원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가졌다.

온빛사랑봉사단의 최고령자가 89세(정암임)로 흥선보금자리 입

원 어르신보다 10살은 더 드셨어도 건강하고 힘 넘치게 그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회원들과 맞춰 넘실 넘

‘찾아가는 재능기부 문화공연’을 겸연 흥선보금자리 입원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가졌다.

온빛사랑봉사단의 최고령자가 89세(정암임)로 흥선보금자리 입

원 어르신보다 10살은 더 드셨어도 건강하고 힘 넘치게 그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회원들과 맞춰 넘실 넘

‘찾아가는 재능기부 문화공연’을 겸연 흥선보금자리 입원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가졌다.

온빛사랑봉사단의 최고령자가 89세(정암임)로 흥선보금자리 입

원 어르신보다 10살은 더 드셨어도 건강하고 힘 넘치게 그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회원들과 맞춰 넘실 넘

‘찾아가는 재능기부 문화공연’을 겸연 흥선보금자리 입원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가졌다.

온빛사랑봉사단의 최고령자가 89세(정암임)로 흥선보금자리 입

원 어르신보다 10살은 더 드셨어도 건강하고 힘 넘치게 그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회원들과 맞춰 넘실 넘

‘찾아가는 재능기부 문화공연’을 겸연 흥선보금자리 입원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가졌다.

온빛사랑봉사단의 최고령자가 89세(정암임)로 흥선보금자리 입

원 어르신보다 10살은 더 드셨어도 건강하고 힘 넘치게 그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회원들과 맞춰 넘실 넘

‘찾아가는 재능기부 문화공연’을 겸연 흥선보금자리 입원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가졌다.

온빛사랑봉사단의 최고령자가 89세(정암임)로 흥선보금자리 입

원 어르신보다 10살은 더 드셨어도 건강하고 힘 넘치게 그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회원들과 맞춰 넘실 넘

‘찾아가는 재능기부 문화공연’을 겸연 흥선보금자리 입원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가졌다.

온빛사랑봉사단의 최고령자가 89세(정암임)로 흥선보금자리 입

원 어르신보다 10살은 더 드셨어도 건강하고 힘 넘치게 그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회원들과 맞춰 넘실 넘

‘찾아가는 재능기부 문화공연’을 겸연 흥선보금자리 입원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가졌다.

온빛사랑봉사단의 최고령자가 89세(정암임)로 흥선보금자리 입

원 어르신보다 10살은